



김연아 '쇼트-프리 최고점'이나



아사다 '역대 최고 총점'이나

올 겨울 최고의 피겨여왕 가린다

ISU 그랑프리 파이널 내일 개막

'역대 쇼트-프리 최고점' Vs '역대 최고 총점' 2008~2009 SBS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11~14일·고양) 여자 싱글 개막을 앞두고 나란히 역대 최고점 기록을 자랑하고 있는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18·군포 수리고)와 아사다 마오(일본)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주니어부터 막이 올 그랑프리 파이널은 12일(쇼트프로그램)과 13일(프리스케이팅) 시니어부 남녀 싱글에서 절정을 맞게 된다. 주니어시절부터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온 김연아와 아사다는 시니어부에서도 그랑프리 파이널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김연아보다 1년 앞선 2005~2006시즌부터 시니어 무대에 뛰어든 아사다는 그해 12월 그랑프리 6차 대회 'NHK트로피'에서 총점 199.52점(쇼트 69.50점+프리 130.32점)으로 우승하면서 이리나 슬러츠카야(러시아)가 갖고 있던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198.06점) 기록을 경신했다.

물론 자국에서 열린 대회여서 흥그라운드 이점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시니어 데뷔 1년 만에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앞세워 최고점 기록을 세우면서 전세계 피겨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사다보다 1년 늦게 시니어무대에 나선 김연아의 성과 역시 뒤처지지 않았다.

김연아는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샤 코헨(미국)이 2003년 세웠던 역대 쇼트프로그램 최고점(71.12점)보다 0.83점 높은 71.75점을 받아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또 그해 10월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는 프리스케이팅에서 133.70점을 기록하며 아사다의 종전 기록(133.13점)을 갈아치웠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합친 총점에서는 아사다가 앞서고 있지만 김연아(197.20점)와 단 0.86점 차 밖에 나지 않아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중 누가 먼저 '꿈의 총점 200점' 고지를 넘을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김연아와 아사다는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각각 193.45점과 191.13점의 시즌 베스트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연아의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 도전과 지난 2006년 우승자 아사다의 우승 타이틀 복귀 여부도 뜨거운 관심사다.

김연아와 아사다는 나란히 시니어무대 데뷔 첫해에 그랑프리 파이널을 제패했다.

뛰어난 기술점수를 자랑하는 김연아와 예술점수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아사다의 대결은 7차례 점프를 선보여야 하는 프리스케이팅 연가에서 누가 실수를 최소화하느냐에 메달 색깔이 바뀔 전망이다.

김연아는 1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약점이었던 트리플 루프를 실수로 처리하면서 기본 점수 5점에서 무려 4.5점이나 깎였다. 이 때문에 3차 대회에서는 더블 악셀로 대체하는 응급처방을 내렸다.

아사다 역시 4차 대회에서 잇단 점프 실패로 자신의 시니어 역대 최저 총점인 167.59점에 눈물을 흘렸지만, 6차 대회에서 철저부심하며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 트리플 악셀 점프 시도와 트리플 악셀-더블 토티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부활해 극적으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트리플 악셀의 회전수 부족과 러츠 점프의 예지 문제는 아사다의 고질적인 약점이다. /연합뉴스

김연아

아사다

Table comparing Kim Yena and Asada Mako across various categories like birth date, height, and competition results.

삼성 이운재 사상 첫 '골키퍼 MVP'

서울 이승렬 '신인왕' K-리그 대상 시상식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그라운드들 가장 빛낸 별은 수원 삼성의 시즌 2관왕 주역인 골키퍼 이운재(35·사진)였다. FC서울의 투키 이승렬(19)은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 선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운재는 9일 오후 서울 유니버시아트센터에서 진행된 2008 삼성하우젠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된 K-리그 기자단 투표 결과 이운재는 총 93표 중 72표를 얻어 압도적 득표로 K-리그 최고의 별로 떠올랐다.

1983년 출범한 한국 프로축구에서 골키퍼가 시즌 MVP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운재는 또 2003년 성남 일화 FC의 김도훈(당시 33세)이 세웠던 역대 최고령 MVP 수상 기록도 새로 썼다.

MVP 상금으로 1천만 원까지 받은 이운재는 1999년과 2002년, 2004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베스트11 골키퍼 부문에서도 수상자로 뽑혀 겹경사를 맞았다. 이근호는 2년 연속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 선정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섯 명의 최종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신인선수상은 이승렬에게 돌아갔다. 이승렬은 총 67표를 얻어 신인 사상 최초로 개막전에서 두 골을 터트렸던 서상민(경남·14표)을 제치고 수상자가 됐다.

이승렬은 올 시즌 31경기를 뛰며 5골1도움을 올렸다. 특히 7월2일 컵대회 경기에서

수원의 18경기 연속 무패(15승3무) 행진을 저지하는 등 전체 5골 가운데 3골을 결승골로 장식하며 해결사로 이름을 알렸다.

감독상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수원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차범근 감독이 수상했다.

수원은 수비수 마토가 2006년부터 3년 연속 베스트11에 선정되는 등 골키퍼 이운재와 미드필더 조원희, 공격수 에두 등 4명이 베스트11에 뽑혔다. 아쉽게 K-리그 준우승에 머문 서울은 2년 연속 수상한 수비수 아디를 비롯해 미드필더 기성용과 이창용 등 세 명이 베스트11에 선정됐다. 기성용은 최다 득표(90표)로 생애 첫 K-리그 베스트11에 뽑혔다.

◇부문별 수상자 ▲최우수선수상(MVP)=이운재(수원) ▲신인선수상=이승렬(서울) ▲베스트11=이운재(수원·GK) 마토(수원) 아디(서울) 박동혁(울산) 최효진(포항·이상 DF) 조원희(수원) 이창용(서울) 기성용(서울) 김병범(전북·이상 MF) 에두(수원) 이근호(대구·이상 FW) △감독상=차범근(수원) /연합뉴스

J-리그 감바, 조재진 영입 추진

아시아 프로축구 챔피언인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가 '작은 황새' 조재진(27·전북 현대·사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9일 "감바 오사카에서 최근 조재진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북은 감바 측에서 적절한 이적료만 제시하고 선수 본인도 원한다면 조재진의 J-리그행을 막을 의사가 없는 상황. 조재진도 유럽 빅리그 진출에 실패했던 만큼 J-리그에 재진출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으며 최



근 엔고 현상 등으로 K-리그에 남는 것보다 일본에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바 오사카는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라 21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J-리그의 강호다.

박지성 뛰는 맨유 일본 원정 15일 FIFA 클럽월드컵 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11일부터 21일 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08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최정예 멤버를 총동원해 우승에 도전한다. 맨유는 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클럽월드컵에 출전하는 일본 원정 명단 23명을 발표했다.

올 시즌 주전 자리를 확고히 굳힌 박지성(27)도 원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웨인 루니,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에드윈 판데사르 등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격으로 클럽월드컵에 출전하는 맨유는 15일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며, 준결승에 직행해 18일 요코하마에서 첫 경기를 치른다. 11일 열리는 에틀레이드FC(호주)와 와이타케레FC(뉴질랜드)의 플레이오프 승자가 14일 감바 오사카(일본)와 맞붙고 이 경기 승자가 맨유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한국골프 간판스타 최경주 프로골프투어 명예회원

한국골프의 간판스타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명예회원이 됐다.

길라 한 아시아투어 회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경주는 부단한 노력으로 실력을 갈고 닦은 끝에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많은 선수들을 감동시켰다며 명예회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경주는 "내가 프로에 입문했을 때 아시아투어는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었던 곳이었다. 명예회원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최경주는 "아시아투어는 내 골프 인생에 토대를 만들어 줬다. 아시아투어 통해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른 문화, 다른 골프코스 등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중반 아시아투어에서 뛰었던 최경주는 이후 일본 무대를 거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올렸다. 아시아투어는 지난 3월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에게도 명예회원 배지를 줬다.